

## ‘양보’를 기본으로 한 ‘타협’만이 불황을 해결할 수 있다

본지 · 김한웅 상무



불 한증막 같은 폭염과 열대야의 연속으로 나라 전체가 몸살을 겪고 있다.

태풍 “담레이”가 온다고 해서 찜통더위가 조금은 가시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결과는 이마저도 저버렸다.

오히려 태풍이 머금은 수증기가 뜨거움에 습기를 더해 불 한증막을 만들어 놓아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육계사육농가들도 죽을 맛이다. 연일 이어지는 더위에 다 키워놓은 닭들을 삶아 죽이는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폭염은 이상기온에 따른 재난이라며 재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육계사육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더욱이 올 복(伏) 대목은 초복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보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날씨가 적당히 무더워야 복(伏) 대목 장사를 잘하고 넘어간다고 했는데 초복(初伏)은 비가 내려 물복(水伏)이 됐고, 중복(中伏)은 토요일이고, 그 이후에는 날씨가 덥고 습한 찜통더위가 이어져 제대로 숨 쉬기조차 힘든 지경이 되다보니 복(伏)기간 중 닭고기 소비증대는 먼 얘기가 되는 듯 쉽다.

이제 그나마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런던 올림픽 특수뿐인데 우리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고 그 응원 열기가 닭고기 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사실 닭고기 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올 한해는 ‘죽어라’ 하고 고생만하고 손에 쥘 것은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전체적인 육류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저렴하게 인식돼 불황기에도 좀처럼 소비둔화가 없었던 닭고기 소비마저 주춤거리고 있다.

또 일부는 저가의 수입 냉동 닭고기에 시장을 잠식당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닭고기 업계의 현실이다.

수입 닭고기 시장의 확대 저지를 위해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별로 신통치 않은 않다.

이미 닭고기 회사들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적지 않은 손실을 기록하며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지만 버거운 상황이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북경기와 올림픽 특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무리를 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닭고기 업계가 겪는 어려움이 현재의 상황으로 계속된다면 올 하반기에도 별로 나아질 것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하반기 이후에는 냉각기를 갖고 총체적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모두가 입장이 분명한 만큼 결코 녹녹치는 않을 전망이나 모두가 양보를 기본으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답은 없다.

농가들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위기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호황은 고사하고 이제는 불황기

“

하반기 이후에는 냉각기를 갖고 총체적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모두가 입장이 분명한 만큼 결코 녹녹치는 않을 전망이나 모두가 양보를 기본으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답은 없다.

농가들도 마찬가지다.

계열화사업자가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합심하여 난국을 타개해 나갈 시점이다.”

”

에 대처해 나갈 대비책이 강구돼야 한다.

계열화사업자가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합심하여 난국을 타개해 나갈 시점이다. 